

마음이란 어디서 온 것인가

마음은 창조력이 있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피가 맑아지고 세포 조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 내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동시에 생긴다. 아니, 유전법칙에 따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육체가 조성되기 시작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피가 돌고 뇌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은 DNA를 통해 유전되므로 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에서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마음에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조상의 핏줄을 따라 올라가면 맨 처음 조상이 나온다.

마음은 그 첫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첫 조상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이 또한 생긴다. 첫 조상이 생기기 이전에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첫 조상에게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첫 조상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첫 조상 이전에 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거나 선가(禪家)에서 내려오는 화두(火頭),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승리자 조희성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끝 간 데 없는 기쁨과 희열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었다. 이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존재했으므로 영이며, 중성의 빛이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자 동시에 생명체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마귀가 하나님을 사로잡는 순간 사람으로 변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동식물과 모든 우주만물이 생성되었다.

승리자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음양으로 변하게 되어 우주만물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일체중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시편 82:6)이라고 하는 성경과 불경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마음은 핏속에 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피 한 방울로부터 시작했다. 정자와 난자 또한 피의 변형체다. 피'는 육안으로 보이는 '빨간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호르몬, 효소, 림프액 등 모든 것이 피에 속한다. 그 한 방울의 피에는 조상들의



유전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 유전정보가 뇌를 통하여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뇌세포에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세포는 마치 회로와 같은 것이며, 뇌세포를 통하여 피가 흐를 때에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핏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미국의 레슬리 다쿠치 박사는 “기억은 뇌에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퍼져 있는, 내장으로 뻗는 신경 경로와 더불어 우리의 피부에까지 퍼져 있는 연결망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폴 피어설 박사는 150명 정도의 장기이식 수술 환자를 면담했는데, 살아 있는 조직의 세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 외쪽에서 인용)고 말했는데, 장거나 조직의 세포 또한 피의 변형이므로 핏속에 기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들의 생각을 비롯하여 행한 것들이 핏속에 녹음이 된다고 말하는 조희성님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이처럼 핏속에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면 기억은 마음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마음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피와 연관시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성격이 꼼꼼하고, B형인 사람은 사교적이며 유순하고, O형인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하며, AB형의 사람은 변덕이 심한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피의 형태에 따라 각기 마음작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피의 작용이 곧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핏주머니인 심장에 마음 심(心)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일컬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말속에 들어 있는 심혈영신론(心血靈身論)

우리 말 속에 마음의 변화에 따른 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많이 있다. 간이 콩만해졌다. 대담(大膽)하다. 비위(脾胃)가 상했다. 얼굴이 사색(死色)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해서 장기나 기관이 변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심신의학

심신의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들에게도조차 생소한 학문이며, 설령 심신의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도 이 분야를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학문이다. 하지만 저 유명한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깊이 연구하여 세상에 내놓았으니 심신의학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심신의학은 프로이드, 아들러 등에 의해 그 기본개념은 이해되었지만 심신의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프란츠 알렉산더이다. 그러다가 존 사노 박사에게 와서 심신의학이 중요한 질병치유 사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심신의학에 따르면 많은 병들이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해로운 감정현상의 무의식적인 방어책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무의식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병이 낫거나 좋아진다.

이밖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도 마음과 피의 변화에 따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피와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마음이 변하면 피가 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영생의 피로 변하고, 반대로 죽을 마음을 먹으면 죽는 피로 변한다는 승리자 조희성님의 가르침은 과학적이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학설이다.*

6월은 보광의 달입니다.

구세주께서 보광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십시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

“보광 (普光) 하신 주님이시여 !”

이 사람은 영원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영원영원 전부터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 몸을 빌려서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만 벗어 던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그대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는 사람이예요. (2001년 8월 24일 주님 말씀 중에서)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오늘날 인간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때가 되면 다시 환원이 될까? 다시 환원이 되면 인간은 못 봐! (2000년 9월 10일 말씀 중에서)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사라질 때

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으러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해. 배신감으로 속았다고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2000. 11. 7 말씀 중에서)

바로 이 공중 높은 곳에 마귀 대장이 있습니다. 그 마귀대장하고 이 사람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싸워서 그 마귀대장을 죽여 버렸어요. 그 마귀대장을 죽여 버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본체는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단상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하는 이 사람은 본체가 아니고 분신체입니다. (2001년 10월 28일 말씀 중에서)*

이기는 삶

부자들의 생활 습관

아무리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싶으면 꼭 사 용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일이 반복 된다. 이렇다가 도대체 돈은 언제 모을 수 있을지 아련하기만 하다. 갑자기 로 당침이 되어 큰돈이 굴러들어 온다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 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것일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자.

진짜 부자는 있는 척하지 않고 얌전하게 표 안 내게 살고 있다. 그들은 아무 리 수입이 많아도, 하세를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Facebook)의 창업자인 저커버그의 자 가용의 가격은 3천만 원 정도이다. 세계 적인 가구 판매점의 이케아 창업자는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 용한다고 한다. 그들은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 의 가치와 가격이 맞는지를 먼저 생각 한다. 가격보다 가치가 높은 상품을 구 매했을 때 그들은 좋은 상품을 구매했 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

요하고 무엇이 낭비인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유행에 휘둘려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절약의 비결이다.

부자는 연봉이 오르더라도 생활비를 올리 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양식에 따

라 살며 고급 자동차와 명품 시계를 소 유하거나 명품으로 치장하는 하세를 부 리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고 한 철학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 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떤 부자는 이발소에 가지 않고, 이 발은 스스로 하려고 한다. 평소엔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료로 혹은 좀 더 싸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본다. 책 은 가능한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쇼핑 도 상품보다 중고품을 선택한다.

부자는 특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 요할 때 구매한다. 당연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은 2십만 원 이상의 시계를 사지 않는다. 시계에서 중요한 것은 시 간을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 로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 억 만장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구입한 다고 하는 정장은 한 벌에 3십만 원 내외 라고 한다. 정장에 거액의 돈을 들일 필 요가 없는 것이다.

부자일수록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지갑 속에 최소한의 돈 만 가지고 다닌다. 마트에 가기 전에 반 드시 구매 목록을 준비하고 목록에 없 는 것은 절대로 사지 않는다. 자기도 모 르게 낭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꼭 목록을 작성하라.

이상의 내용을 보니 정말 부자가 되 기는 어렵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생각보다 는 부자들의 생활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since 1981

